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8일

CUOMO 주지사, 비상사태 대응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다

주지사, NYS 비상사태 관리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새로운 무선 긴급정보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에 대한 연방 승인을 발표하고; 폭풍 발생 시 현장응급처치자(First Responders)와 뉴욕 주민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폭풍 당시 학습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상 사태 대응 상황에 대한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1주년을 하루 앞두고 Albany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뉴욕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현장응급처치자와 지역 공무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현장응급처치자와 현지 공무원들에게 동일한 재난 대응 프로토콜의 역할을 하게 될 비상사태 관리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뉴욕주가 비상 상황 발생 전, 도중 또는 이후에 뉴욕 주민들에게 장소 지정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연방 무선 긴급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뉴욕의 요청을 연방정부가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폭우 Lee, 초강력 태풍 Sandy가 발생하고 지난 여름 Mohawk Valley와 Upstate New York의 다른 지역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영웅적 행동과 용기를 보여준 뉴욕 주민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주지사와 참가자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발생했던 주요 폭우로 체득한 교훈과 우리의 비상 사태 대응 상황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취했던 단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초강력 태풍 Sandy,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폭우를 경험한 후 뉴욕주가 오늘날의 기후 변화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Sandy 발생 기념일 전 날, 이 회의는 현장응급처치자와 지역 공무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발생해 뉴욕주의 모든 커뮤니티에 피해를 끼친 '백년에 한 번 정도나 발생할 규모의 세 번의 폭우'를 통한 교훈에 대해 논의하고 자연과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향후 비상사태 대응 방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서 우리는 주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간소화된 비상 대응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뉴욕주 최초의 비상사태 관리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바입니다. 우리는 향후 비상 사태 발생 시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를 전달할 연방 무선 긴급경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세 번의 폭우 발생 시 이러한 영웅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넘어서 활동한 현장응급처치자와 시민들에게 치하할 예정입니다. 날마나 뉴욕 주민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뉴욕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꿔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장응급처치자와 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오늘의 회의에서, 주지사는 재난 대응 활동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카운티장, 카운티 비상사태 관리자, 지역 현장응급처치자(예를 들어, 소방서장, 경찰서장, EMS 국장 및 기타 카운티 공무원)를 대상으로 동일한 비상 사태 대응 상황 교육을 제공할 최초의 주단위 프로그램의 구축을 발표하였습니다. NYS 비상사태 관리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NYS-EMC)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카운티에서의 재난 대응 활동을 인증할 예정입니다.

NYS-EMC는 세 단계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1단계는 카운티장을 대상으로 한 1일 교육 세션이고, 제2단계는 카운티 비상사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4일 반 나절 교육 세션이며, 제3단계는 지역 현장응급처치자를 대상으로 한 2일 교육 세션입니다. 제1단계와 제2단계 교육 참가자들은 매년 하루의 시간을 내어 최신 교육 세션을 받게 될 것입니다.

NYS-EMC 인증을 받으려면 카운티장 및 비상사태 관리자에게 뉴욕주 DHSES(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관리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상사태 대응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뉴욕주의 Jerome M. Hauer DHSES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로 우리는 현지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줄 종합적이고 통일된 교육 활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의 Stephen J. Acquario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욕주는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의 일부를 경험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주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뉴욕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번에 발생한 재난에서 체험한 교육을 서로 나눌 것이며, Cuomo 주지사가 개발한 새로운 뉴욕주 교육 및 인증 프로젝트는 향후 카운티의 비상사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뉴욕주 비상사태관리협회의 Kevin Niedermai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들을 지원해줄 뉴욕주 비상사태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마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 능력을 잘 갖춘다면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모바일 전화 경고 시스템

오늘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비상 상황 발생 전, 도중 또는 이후에 뉴욕 주민들에게 장소 지정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연방 무선 긴급경보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한 뉴욕의 요청을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와 FEMA가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주지사의 시정 연설에서 주지사가 발표한 무선 긴급경보시스템은 사운드 또는 진동을 동반한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뉴욕주는 카운티 전체, 또는 특정 시 또는 마을, 또는 지역에서 모바일 전화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달하여 지역을 특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대피 방향, 근처 푸드 스테이션 위치 또는 현지 대피소, 현지 전력 복구에 대한 정보, 또는 뉴욕 주민들이 비상 사태 시 필요로 하는 기타 지역 특정 정보가 포함됩니다.

연방 무선 긴급경보시스템은 심각한 기상 경고 및 기타 비상사태의 임박한 위협, Amber 경고, Presidential 경고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승인으로 뉴욕은 심각한 기후 상황/비상 상황의 임박한 위협 범주에 중요한 사전 및 사후 폭풍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선 긴급경보시스템은 우리의 NY Alert 시스템의 기타 요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뉴욕 주민들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또는 뉴욕주의 NY Alert 앱을 통해 비상상황 메시지를 전달 받는 것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폭우 발생 시 및 이후 영웅적 구조 및 복구 활동으로 오늘 주지사의 표창을 받은 뉴욕 주민 명단:

- Andrea Curran, 관리인, Camp Bulldog, Lindenhurst
- 뉴욕주방위군, 제102 헌병대대 소속:
 - Arthur Zegers 중령, 대대장
 - Thomas Ciampolla 부대 주임 상사
 - Kevin Conklin 선임하사관
- FDNY 소속:
 - James Daly 참모부차장, FDNY 전략기획참모본부장
 - Kevin Butler 참모부차장
 - Andrew Hagan 소방관
 - Leonard Cimadamo 소방관
- NYPD 소속:
 - Al Pizzano 지구대장, NYPD
 - James Wahlig 지구대장, NYPD

- Joe Steyer 보안관 대리, Ulster 카운티
- Sarah Goodrich 상임이사, Schoharie 지역 장기 복구
- John M. Keough 기병, 뉴욕주경찰서
- Brett Chellis, 국장/소방조정관, Broome 카운티 비상 서비스 사무국
- Bob Vandewalker, Herkimer 카운티 EMS 코디네이터
- Ron Konowitz, Town of Keene Volunteer Fire Department, Volunteer Coordinator, Town of Keene 허리케인 Irene 복구 팀

Irene, Lee, Sandy로 경험한 교훈

큰 폭풍우 발생 후 주지사는 주요 기상 상황을 견뎌낼 뉴욕주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구조물의 구축 임무를 맡을 NY Ready Commission과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기량을 갖추게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NY Respond Commission의 발족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주요 예비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지사의 2013년 시정 의제에 일련의 새로운 사업이 포함되었고 이후 제정되었습니다.

두 위원회의 권고안은 심각한 기상 상황의 발생 횟수와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거론하였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믿을 수 있고 시기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첨단 교육 및 준비, 모든 부문에서의 보다 나은 조정, 비상사태 발생 후 연료 및 통신수단과 같은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보다 탄력적인 시스템, 사회적 소외 계층민들에 대한 관심 집중을 포함한 새롭고 개선된 일련의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두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뉴욕주가 취한 조치:

교육 및 조정:

- **뉴욕주 현장응급처치자 네트워크:**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통일된 비상사태 교육, 조정,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뉴욕주 전역에 비상사태 관리자, 지역 공무원 및 현장응급처치자의 지역 대응 및 조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10 곳의 ERZ(Emergency Response Zones)을 마련하였습니다.
- **비상사태 대응 교육:**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비상사태 대응 인력에게 첨단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주, 카운티, 지역 공무원 및 현장응급처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SPTC(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교육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500%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의 필수 장비 보유 현황:**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물자 및 장비를 보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9개 지역에 신속 배치가 가능한 중요 장비 및 구명 물품 비축 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 특수 교육:**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주방위군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특수 교육을 추가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신속한 전력 복구를 위해 안보,

물류, 수송 및 통신 지원 교육을 받은 주방위군을 수 백명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

- **주유소의 예비 전력:** 두 위원회는 전략적인 장소에 자리한 주유소에 현장 예비 전력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중요한 다운스테이트 지역이 비상사태 발생 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유소 예비 전력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전략적 휘발유 비축:**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서 연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에너지 역할을 해줄 전략적 휘발유 비축 시설(**Strategic Gasoline Reserve**)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은 현장응급처치자와 뉴욕 가구들이 에너지 부족을 겪지 않도록 300만 갤런의 연료를 비축할 미국 최초의 전략적 휘발유 비축 시설을 세울 예정입니다.

통신수단:

- **StormRecovery.NY.gov:**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재난 대응을 처리할 온라인 윈스탑 창구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비상 사태 복구 자원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소셜 미디어와 매핑을 사용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모든 지원 상황을 알려주는 StormRecovery.NY.gov를 개설하였습니다.
- **NY-TEXT:**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뉴욕 주민들과 통신하는 데 지역 특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비상 상황 발생 전, 도중 및 이후에 지역 특정 NY 정보 메시지를 제공할 때 연방 무선 긴급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 계층:

- **뉴욕의 사회적 소외 계층 보호:**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현장응급처치자, 아웃리치 작업자, 보건 및 대민 서비스 직원들에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보건 및 대민 서비스 시설이 철수할 때 환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뉴욕주의 비상 상황 추적 시스템인 **NYS e-FINDS**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가 취한 추가적 조치에는 대피소로 대피시킬 수 있는 보건시설의 능력 평가와 병원, 요양원, 성인 간호 시설, 지역 보건부, 지역 비상 상황 관리 공무원에게 최신의 대피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 **보건시설의 위치:** 두 위원회는 뉴욕주에게 보건 시설의 새로운 건축 또는 리노베이션 의견이 나올 때 위치 취약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취약 지역에 세워졌거나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진 병원 및 요양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과 예비 전력을 개발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